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학 교육과정 연구

- 종교교과서 개발과정을 중심으로 -

김태영(부산관광고등학교 교목)¹⁾
tykim542@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한국 근대 공교육의 시작¹⁾을 1883년 원산학사로 보면 132년, 1945년 미군정기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근대 이후 기독교교육으로 볼 때 7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개항기부터 을사늑약까지 조선의 근대 공교육 발전에 기독교의 역할은 매우 컸다. 비서구권 사회에서 기독교가 근대 공교육의 형성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은 정부와 지역사회의 힘이 미약한 상황에서 기독교 교육은 주인 없는 땅을 개척하는 것처럼 조선의 근대 공교육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정병오, 2014, 235).

근대까지 공교육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기독교 교육의 배경에는 기독교학교가 있었다. 기독교학교는 해방될 때까지 사회변혁운동, 민족운동, 여성교육운동 등으로 조선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고(김태영, 2012, 35), 해방 이후 교수요목기에 교과서 간행이 시급하여 일제시대의 교육내용에 입각하여 교육과정의 기틀을 놓을 때²⁾와 1차 교육과정까지 기독교학교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1965년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된 중학교 무시험제도에 이어 1969년 중학교 평준화와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은 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종교교육의 큰 변화를 가져왔고(손원영, 2004, 1), 특기할만한 사실은 교육의 대부분을 맡고 있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국가가 하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평준화지역에서는 공, 사립간에 공납금의 차등을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1971년부터 시작한 사립중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었고, 1993년 현재를 기준으로 중학교는 99.8%, 고등학교는 94.3%가 재정의 결합에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윤정일, 2005, 271). 이를 정점으로 하여 국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설립이념인 기독교적 세계관에 근거한 교육이 상당히 위축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기독교의 약화와 더불어 기독교 종립학교에서 조차 성경을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기독교계 종립학교를 포함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사용하는 종교

1) 정웅섭의 한국 근대 공교육의 시대구분을 보면 1880년~1905년 근대 공교육의 정초기, 1905년 을사늑약~1945년 해방 식민지형 근대교육 수립기, 1945년~1948년 정부수립 미군정기 민주적 교육제도 기반 구축기, 1948년 정부수립~현재까지 한국형 교육발전 및 교육모순 심화기로 구분하고 있다.

2) 이돈희는 한국교육학의 성장과 과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43, 1983.)에서 교수요목기 교과서 간행은 현대적인 교육사조가 반영될 겨를이 없었고, 일제시대 행해지던 교육내용에 입각하여 만들어졌으며 제1차 교육과정이 우리 자신이 만든 체계적이며 동시에 성문화된 첫 교육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교과서의 현실은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성경을 교재로 사용해오다 2000년대 들어 와서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서 발간된 ‘종교(기독교)’, ‘생활과 종교’ 교과서를 사용하거나, 종교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임의로 만든 교재를 사용하는 등 종립학교가 추구하는 종교교육의 목적에 합당한 제대로 된 교과서가 없었다. 2004년 강의석 학생 사건을 기점으로 종교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논쟁이 더 가열되었고 이러한 때 종교 교과서는 그 존재감마저 없어지고 있다.

1) 종교학 교과서의 한계

부산, 경남 지방의 9개 기독교계 종립학교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종교 교과서가 없다. 몇몇 학교만 한국기독교학교 연맹에서 발행한 ‘생활과 종교’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개의 학교는 성경을 근거로 한 종교 교사 재량에 의한 교안으로 특강식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독교학교의 종교 수업은 계획된 교육과정을 가진 종교교과가 아닌 특강이나 종교 교사의 재량에 운영되고 있으며, 외부 선교단체에 그 역할을 맡겨 두고 있다.

또한 일부 종립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교 교과서인 ‘생활과 종교’도 기독교 교인이 아닌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기에는 너무 성경적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결국 7차 교육과정이 말하고 있는 비교 종교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특정 종교인 기독교만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일반 청소년들에게 기독교학교만이 교육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에 바탕을 둔 전인적 수업이 가능한 종교 교과서가 필요하다.

2) 다이아몬드 교육과정의 필요성

본 연구자는 기독교계 종립학교에서 교목으로 7년을 사역하면서 종교 교과서 없이 수업을 하였다. 그 기간 동안 연구자는 기독교 세계관에 관점을 둔 종교 교육을 하고자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였고, 직접 개발한 교육과정을 수업에 적용하면서 임상교육 한 결과 5가지의 주제가 만들어졌다. 이 주제들은 기독교 교육학자들과 수차례 논의와 연구에 끝에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으로 확정되었고, 제1권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로 출간되었다. 이 교과서는 모든 기독교 종립학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식 종교 교과서가 만들어진 것이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교과부의 종교 교과의 방향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독교 학교가 추구해야 할 종교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으며, 종교교육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각 기독교 학교들의 상이한 종교교육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도 인성자존감 교육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다이아몬드처럼 청소년들의 삶에 꼭 필요한 5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가정보다 더 오래 머물고 있는 기독교학교의 역사와 그 영향력에 대한 교육, 그리고 기독교학교가 소중하게 다루는 주제들

필두로 현대에 들어 무너져 가고 있는 가정, 예컨대 가정의 정체성에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비전과 성품, 또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유념해야 할 만남 등이 다섯 가지 주제를 대신, 대아, 대인, 대물의 사중관계³⁾ 중심 커리큘럼의 관점으로 저술하였다.

II. 삶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정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보기 전에 근대 이후 종립학교에서 실시해오던 교육과정의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1. 근대이후 교육과정 변천

1) 근대이후 교육과정

근대이후 교육과정을 논함에 있어 1969년 중학교 평준화와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를 빼놓고 말할 수 없다. 이 교육정책은 종교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중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지원제에서 추점제로 바뀌면서 학교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와의 관계에서 계속적인 긴장과 갈등 관계를 가져오게 되었다(김태영, 2012. 164).

해방이후 교수육목기를 거쳐 1차에서 7차에 걸친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는데 이는 교육을 국가가 주도함으로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 현재는 기독교학교 교육이 교육의 질이나 시설 면에서 공교육에 뒤처질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종교교육도 실시하지 못하는 무늬만 기독교 종립 학교로 전락하였다.

2) 교육과정 속에서 종교학 교육과정

한국 기독교학교의 발전은 교회교육,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왔다. 기독교학교는 채플을 중심으로 한 성경을 교과서로 교목과 종교 교사의 재량에 의한 수업을 해왔다(유재봉, 2013. 130). 기독교학교에서 행해지는 종교 교육과정의 세 가지 유형⁴⁾을 신앙 교육적 종교수업 유형, 종교학적 종교수업유형, 창조적 종교수업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앙 교육적 종교수업 유형이란 개신교의 한국도래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기독교학교는 대부분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미션학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학교의 운영은 종교수업의 형태를 복음화에 목적을 둔 신앙 교육적 종교수업 유형을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기독교학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수업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성경을 기반으로 기독교적 회심에 종교수업의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종교수업의 한 형태로 학교예배인 채플이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기도 했다.

둘째, 종교학적 종교수업유형은 6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종교학적 토대 위에서

3) 월터스토폴를 비롯한 기독교 교육학자들의 이론을 정리한데서 사중관계를 적용하였다.

4) 손원형은 한국 기독교계 중등학교에서의 종교수업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종교일반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개발된 종교 교과서를 가르치게 되었다.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란 오직 종교에 대한 교육, 즉 종교학적 종교수업 모형이 정교분리 원칙에 부합하다는 논리를 토대로 제안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들어진 것이 한국기독교학교 연맹에서 발간된 ‘종교(기독교)’이며, 현재는 ‘생활과 종교’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정종교의 신념체계에 입각해서 모든 종교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교육시키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셋째, 창조적 종교수업 유형은 신앙 교육적 종교수업유형이 가장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유형이요, 종교학적 종교수업유형이 정부주도형 종교수업이라면 제 7차 교육과정의 현실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기독교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학교는 학교의 교육목표 설정에 있어서 기독교적 정신이 명목상으로는 유지되고 있지만 교육목표의 구현이 주로 예배와 종교 수업시간 같은 종교 영역에서 집중되고 그 외의 일반적인 교육활동에서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관계가 적은 입시교육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강영택, 2013. 143). 이러한 이원론적 기독교학교의 교육은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약화시켜왔다. 이는 초기 기독교학교가 보여주었던 신앙과 민족정신의 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으로부터 후퇴한 것이다.

이러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속에서 기독교학교의 종교교육 과정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종교 교과서의 출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비록 종교수업 교과서이지만 삶과 신앙을 통합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교육 현실 속에서 무너져가는 인성교육을 포함하여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종교 교과서라 할 수 있다.

2. 삶의 변화를 주는 다이아몬드 교육과정

삶의 변화를 주는 다이아몬드 교육과정은 이러한 시대에 맞는 종교교과서이다. 이 교과서는 히든 커리큘럼으로 성경과 복음이 숨겨진, 예컨대 성경과 복음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한 교육목적을 두고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5가지의 다이아몬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이라 불리는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여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인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⁵⁾을 견지하고 있다.

1) 다섯 가지 다이아몬드 주제

삶에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기독교학교, 가정, 성품, 비전, 만남의 주제로

5) ‘삶에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Waters의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으로 만들어 가려 한다. 모든 교과서의 내용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여 변질된 과정을 설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아 완성된 삶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구성되어 있다. 이 주제들은 히든 커리큘럼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을 다루고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성품을 다루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보내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소명, 즉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또한 다양한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과 만남을 정점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고 있다. 성경과 교회를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숨겨진 기독교 세계관에서 배어져 나오는 성경적 가치관이 교과서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히든 커리큘럼은 대신 대아 대인 대물의 사중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의 전체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⁶⁾

단원	구분	과 제목	학습목표	소주제
I. 기독교 학교	대물	1. 기독교학교의 시작	기독교학교의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다.	1. 조선의 문이 열린다. 2. 처음 온 사람들, 의사, 목사, 선교사 3. 최초의 기독교학교의 시작
	대물	2. 기독교학교가 준 영향	기독교 학교가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 수 있다.	1. 사회변혁운동 2. 민족운동 3. 여성교육운동 4. 기독교 학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
II. 비전	대아	1.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세계관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보다 정교한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 볼 수 있다.	1.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2. 한국인들의 세계관 3. 보다 정교한 세계관
	대아	2. 비전이 주는 힘	비전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개인의 비전을 수립 할 수 있다.	1. 비전이 주는 놀라운 힘 2. 비전을 이루기 위한 대가 3. 비전에 성공한 사람들
	대물	3. 미래여행	인생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다.	1. 내가 꿈꾸는 나의 미래 2. 나의 미래 이력서 3. 꿈 너머 꿈
	대인	4. 리더십	리더십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 말할 수 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삶의 덕목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1. 리더십이란? 2.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3. 칼과 칼집
III. 가정	대아	1. 매력 있는 나를 찾아서	자신의 성격 유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나는 어디서 왔는가? 2. MBTI와 DISC로 알아보기 3. DISC를 통해서 찾아보는 매력 있는 나
	대아	2. 착한 연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임을 알 수 있다. 착한 연애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성결한 정신, 성결한 육체 2. 착한 연애 3. 착한 연애를 위한 원칙 4. 착한 연애에 실패했을 때
	대아	3. 행복한 결혼	남녀의 차이를 설명 할 수 있다.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1.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라 2. 결혼의 기본 요건

6) 종교교육연구회 회원들과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히든 커리큘럼을 배경으로 한 종교교과서 ‘삶에 변화를 이끄는 종교’를 제작하면서 만든 전체 커리큘럼이다.

IV. 성품	대아	1. 사람의 됨됨이, 성품	성품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성품의 중요성을 알고 실천해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	1. 성품 이해하기 2. 성품의 종류 3. 성품을 실천해야 할 이유
	대아	2. 모든 것 중의 으뜸, 사랑	사랑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1. 사랑이란... 2. 사랑이 없다면... 3. 사랑을 실천하려면...
	대아	3. 들음의 기술, 경청	경청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생활 속에서 경청을 실천할 수 있다.	1. 경청의 의미 2. 경청의 중요성 3. 경청 실천하기
	대아	4. 나는 너를 인정해, 배려	배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타인을 배려할 수 있다.	1. 배려의 정의 2. 배려의 기술 3. 배려하는 마음
V. 만남	대인	1. 사람과의 만남	좋은 만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1. 낯고, 키워주고, 가르쳐주신 부모, 선생님과의 만남 2.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 친구와의 만남 3. 행복한 삶의 터전인 직장과의 만남
	대인	2. 하나 되는 우리, 통일	북한문화를 알 수 있다.	1. 남한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이해 2. 일상생활 문화 이해하기 3. 북한 노래 듣기
	대물	3. 자연이 숨쉰다, 환경	환경의 보호가 사람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지수를 높이고 실천한다.	1. 환경과 우리의 일상 2. 나의 환경불감증 지수 측정 3. 환경을 사랑한 사람들
	대신	4. 특별한 만남	좋은 만남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만남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	1. 기적을 이룬 만남 2. 내 삶을 변화시켜 준 만남 3. 인생 최고의 만남

2년 4학기로 구성된 교육과정 중 커리큘럼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다섯 가지 중요한 단원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독교학교

기독교계 종립학교에 국가가 임의적으로 배정한 학생들에게 기독교 학교가 근대를 전후한 교육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⁷⁾,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 배출된 다양한 인재들이 국가와 사회변혁에 미친 영향들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학교를 소개하고, 자신이 다니고 있는 기독교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학생 스스로 삶의 정체성과 살아가야 할 이유인 소명을 발견하려는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학교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육목표가 학생 자신의 목표가 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단순하게 입시 위주의 교육목표에 함몰되어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공부만 하는 학생이 아닌 이 단원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 앞서 자

7) 개화기에 기독교학교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 했던 사회변혁운동, 민족운동, 여성교육운동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향후 2권에서는 미래 사회에 기독교학교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이다.

신을 희생하며 살았던 선교사들의 삶을 반추함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 하는데 그 교육목적이 있다.

나) 가정

성경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작품으로 가정과 교회를 말하고 있다. 기독교적 가치로 볼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소중히 여겨야 할 부분이 가정이다. 가정은 행복의 저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산업화 이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이혼이 증가하고, 가정에서 온전한 자녀양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국가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학교는 가정의 기본적인 요소인 부모 됨, 예컨대 아버지 됨과 어머니 됨의 본질이 무엇이며,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

본 단원에서는 가장 가치롭게 여겨야 할 가정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정의 근간이 부부의 관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가정의 원리와 부부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가르침으로서 미래에 부모가 될 학생들에게 건강한 가정의 기본원리를 가르치는데 그 교육목표가 있다.

다) 성품

인간에게 인간다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는 기술이 성품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내재적 독특성과 각자가 가진 성격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기에 거친 성격들이 쓴 뿌리가 되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경향이 많다. 전인적인 인격이 갖추어져야 할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인격적 덕목들을 배움으로 향후 대인 관계에서 성숙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월터스토프는 경건과 복음에 대한 관심을 유지한 채 문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회, 특별히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월터스토프, 2015. 95). 본 단원에서는 성품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했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그 교육목표가 있다.

라) 비전

아직 삶의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지어주는 나침반을 찾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태어날 때부터 내재된 자신만의 달란트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하여 찾아보게 함으로 삶의 동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마) 만남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되어 만남의 연속이다. 잘못된 만남이 주는 엄청난 고통들에 대해 배움으로 행복한 만남을 기대하게 만들어 주며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준 만남

과 삶에 변화를 이끌어 준 만남들을 살펴보면서 인생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임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목적이 있다.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청소년 때 이러한 다섯 가지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으로 잘 훈련되고 교육되어 사회로 나가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성숙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 결국에는 인격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교재이다.

2) 다이아몬드 교육과정의 기독교학교에서 가치

1970년대 이후 고교평준화정책이 확립되어 선교와 인재양성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자 했던 미션스쿨은 정체성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교를 목적으로 개설된 성경과목과 종교 활동은 주변 과목 내지 비공식적 활동이 되어버렸다. 과열된 입시열풍 때문에 이러한 과목과 활동은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졌다(조성국, 2010, 107). 2000년대 이후에는 의무적인 성경수업과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사회 문제화 되기도 하였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미션스쿨의 기독교신앙교육 및 예배활동이 위협받고, 교육여건도 공립학교보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여 점차 위상도 약화되면서 기독교학교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한편, 지금까지 기독교학교가 공통으로 사용해오던 종교 교과서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교 교과서는 한국기독교학교연맹에서 발간한 ‘생활과 종교’ 뿐이다. 기독교 학교 100년 역사에서 다양한 종교 교과서가 없는 현실을 생각할 때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한 창조적인 종교교육 교재가 필요하다. ‘생활과 종교’ 교과서를 일부 학교가 사용해 오고 있지만 이 교재는 7차 교육과정 현실과 현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계 종립학교가 자체 제작한 특강식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 학교 100년 역사에서 기독교계 종립학교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종교 교과서 부족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교과서의 발간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다이아몬드 교육과정을 기초로 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모든 기독교학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라는 점에서 대단한 가치가 있다. 다섯 가지 다이아몬드와 같은 주제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만남들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등이 이후 더 심도 있는 주제들로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그동안 미션 스쿨에서는 성경을 종교 교과서로 사용하거나, 성경을 배경으로 한 주일학교 공과식의 교재를 사용해 왔기에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로서, 전인격적인 삶을 다루는 교재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삶에 직접적인 해답이 필요할 때 직면했던 막막한 주제들을 직접 다루고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이나 삶에 갈등이 생길 때 그 해결 방법을 교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면에서 종교 교과서라기보다는 인생 교과서라 할 수 있다.

3. 한국 공교육에서 다이아몬드 교육과정의 위치

조성국⁸⁾은 판 브룸멜런의 인본주의 교육과정의 문제점 인용하여 기독교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조성국, 2013, 115). 첫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교육과정을 교과지식학습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교과지식학습이 마치 탈종교적인 것처럼 간주되고, 지식학습이 학교교육에서 절대가치로 수용되는 것은 인간지성의 능력을 과신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의 결과로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서 볼 때 교육과정에 대한 과정적 접근도 충분하지 않다. 셋째, 교육과정에 대한 사회적 적실성의 관점도 부족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은 필수적으로 성경과 기독교 세계관을 그 중심에 두고, 그 관점에 따라 세계와 사회와 문화의 다양한 차원의 법칙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며, 그 각 차원에서 적합한 능력을 계발하여,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과 사회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 브룸멜런은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을 두고 네 가지 목표와 특성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 교육과정은 삶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의 기초, 체계, 함의를 펼쳐내야 한다. 둘째, 교육과정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창조세계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선포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동료 피조물에 대한 봉사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섬김을 위하여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재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념적 발전과 능력 육성이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성경적 관점에서 개인적 결단과 공동체적 결단에 이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교육과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기꺼이 섬기는 기독교적 삶의 양식에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가 바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이미 아는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 공교육에서 전인격적인 삶과 통전적 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는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독특한 종교 교과서를 넘어서 공교육에서 강조하는 인성 자존감을 높이는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졌다. 일반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도 없고, 관련 교과 수업이 없다. 또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만한 전문 교과서는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대두되기 시작한 인성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은 단기적인 특강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에 불과하며

8) 조성국은 기독교 교육학의 길에서 기독교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기독교학교가 견지해야 할 교육과정을 판 브룸멜런의 이론을 곁들여 제시하고 있다.

이 또한 수업 외에 영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교육과정은 실제 삶에서 영향 받을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종교 교사들이 이 교재를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삶을 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담이 아닌 공적 수업을 통해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의 삶의 문제를 공통적이며 공개적으로 다룸으로서 공교육이 하지 못하는 전인적 교육을 교실에서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교과서가 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대안학교는 성경을 주 교재로 사용하는 한계를 넘어서 더 다양한 삶의 내용을 다루는 다양한 교재가 개발됨으로 이와 유사하고 깊이 있는 종교 교재들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앞으로 기독교 학교들이 다양하고, 실제로 삶에 유익을 주는 주제들로 구성된 종교 교과서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III. 결론

우리나라는 개신교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 선교사들을 통해 전수받은 기독교는 기독교학교를 중심으로 조선 사회와 근대 교육과정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으나 해방 이후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교육이 국가 주도로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과서를 개발하는 동안 기독교 학교에서 사용된 종교 교과서는 ‘생활과 종교’ 한 종에 불과했다. 그것도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할 뿐 대부분의 기독교계 종립학교는 자체로 제작한 교재를 사용해왔다.

본 연구자는 기독교계 종립학교에서 교목으로 사역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수업했던 내용들을 커리큘럼화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기독교 학자들과 1년에 걸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이론과 실제를 통합한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는 부산 경남의 기독교 학교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이기도 하지만 향후 한국의 공교육에서 인성 함양을 위한 교재로도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독교 학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를 담고 있는 종교 교과서로서 모든 기독교계 종립학교에서 종교 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음에 그 가치가 있다.

기독교 학교 100년 역사에서 마땅한 종교 교과서 없이 성경을 주 교재로 한 채플식 교육이 주를 이루어 왔다면 이젠 교실에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 수업을 통한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 교과서가 발간됨을 정점으로 더욱 많은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종교관련 교과서들이 개발되어 기독교 학교만이 교육할 수 있는 독특한 종교 교과서들이 출간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교과서가 기독교 세계관의 요약이라 할 수 있는 창조, 타락, 구속의 관점을 견지한 전인적 기독교 교육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종교 교과서로 널리 사용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교과서 개발이 기폭제가 되어 더 다양

하고 삶의 문제를 다루는 깊이 있는 종교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와 학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 교과서는 고신대학교의 지원과 교수들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교과서였다. 기독교학교의 현장에 맞는 이론적 배경을 고신대학교 교수들의 뒷받침을 받아 더 다양한 종교 교과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부산 경남을 넘어 한국의 기독교학교에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과서가 많이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져 기독교학교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독교학교가 되기를 꿈꾼다.

참고문헌

- 강용원 (1994). 공립학교에서의 종교수업의 근거에 관한 논의. **통합연구**, 57-191.
- 강연정 외(2015). **삶의 변화를 이끄는 종교**. 서울: 동문사
- 강영택 (2011). 기독교학교에서 종교교육의 방안에 대한 고찰. **기독교교육논총**, 27, 193-216.
- 강영택 외 (2013). **종교교육론-학교에서의 기독교적 종교교육**. 서울: 학지사.
- 김태영 (2012). **현대 한국 기독교학교 정체성의 역사적 고찰**.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 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2005). **한국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 손원영 (2004). 기독교계 중등학교에서의 종교수업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1-21.
- _____ (2010).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종교교육학연구**, 32, 211-230.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14). **스윗스팟**. 서울: 북모아.
- 신국원 (2014). **니고데모의 안경**. 서울: IVP.
- 조성국 (2010). **기독교 교육학의 길**. 부산: 기독교사상연구소.
- 조신영·박현찬(2011). **경청**. 서울: 위즈덤하우스.
- 한국기독교학교연맹(2012). **생활과 종교(상)**. 서울: 생명의 말씀사.
- 한상복 (2010). **배려**. 서울: 위즈덤하우스.
- Bartholomew, Craig G. & Goheen, Michael W. (2014). 김명희 역. **성경은 드라마다**. 서울: IVP.
- Dyk, John V. (2003). *The craft of christian education*. 김성수 역. **가르침은 예술이다**. 서울: IVP.
- Dyk, John V. (2012). *Letters to Lisa*. 박상호 역.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 서울: 교육과학사.
- Green Jr, A. E. (2001). *Thinking christianly : new patterns for new people*. 안경상 역.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서울: CUP.
- Wolterstorff, Nicholas (2014). *Educating for shalom*. 이현민 역. **shalom을 위한 교육**. 서울: SFC.

Wolters, A (1992). Creation Regained. 양성만 역. 창조, 타락, 구속. 서울: IVP.